

국제갤러리 그룹전 《A Snowflake》

기자간담회: 2017년 5월 25일(목) 오후 1시 국제갤러리 1관 (K1)

전시기간: 2017년 5월 25일 - 7월 2일

전시장소: 국제갤러리 1관 (K1)

초빙큐레이터: 현시원 (시청각 공동디렉터)

참여작가: 김익현, 이미래, 박정혜, 최윤



“참된 신비는 눈송이 자체가 아니다. 진정 놀라운 것은, 우리의 우주가 몇 개의 복잡한 형태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토록 많은 복잡성을 산출할 만큼 풍부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행성 전체는 우주의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 이언 스튜어트

국제갤러리는 2017년 5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네 명의 신진 작가들이 참여하는 그룹전 《A Snowflake (스노우 플레이크)》를 개최한다. 국제갤러리는 지난 2013년 《기울어진 각운들》전을 시작으로 발전가능성 있는 신진 작가를 육성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왔다.

그 일환으로 올해에는 현시원 큐레이터의 기획으로 김익현, 최윤, 박정혜, 이미래 총 네 명의 전도유망한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가 개최되며, 이후 뉴욕에서 활동하는 젊은 그래픽 디자이너 강문식, 전시공간 시청각과의 협업으로 전시 도록을 제작할 예정이다.

그룹전 《A Snowflake》는 영국의 수학자이자 대중과학 저술가, 이언 스튜어트의 대표작 『눈송이는 어떤 모양일까? (What Shape is a Snowflake?)』라는 책에서부터 출발한다. 스튜어트 박사는 파국(Catastrophe) 이론의 개척자로 자연의 패턴 형성과 카오스 이론 같은 동역학계의 대칭성에 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지은 책으로는 『자연의 패턴(Nature's Numbers)』, 『카오스의 붕괴(The Collapse of Chaos)』, 『눈송이는 어떤 모양일까?』 등이 있다. 그 중 『눈송이는 어떤 모양일까?』를 살펴보자면 눈송이의 이미지에 따른 구조, 예를 들어 육각형, 수평적으로 뻗은 거미줄의 입자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흥미롭게도 이언 스튜어트는 눈송이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구조들의 실체를 통해 근본적으로 “눈송이는 그래서 눈송이 모양이다”라는 철학적 함의를 지닌 결론을 내린다. 눈송이 모양은 무수한 조건에서 영향을 받지만, 요는 결정체의 섬세한 구조와 이것이 반추하는 형상에 근거한 삶을 바라보는 핵심을 깨달아보자는 것이다.

실증적 세계와 해답이 있는 세계를 다루는 과학자에게 눈송이가 지니는 형상을 연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터, 스튜어트 박사는 ‘눈송이는 어떤 모양일까’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통해 개인의 오랜 집념으로 사물을 오랫동안 관찰하는 과정을 질의하고 있는 것이다.

《A Snowflake》에 참여하는 김익현, 최윤, 박정혜, 이미래 총 네 명의 젊은 작가들은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관찰을 통해 그들의 세대를 반영하는 일련의 주요작품 및 신작을 소개한다. 동시대 젊은 작가들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아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모양인가’를 세밀하게 탐구한다.

‘눈송이’는 나이와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가 경험하는 ‘눈사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눈사람이 귀여움과 사랑스러움, 눈이 오는 계절의 상징이자 의인화한 사물의 아이콘이라는 알아보기 쉬운 정보로서 통용되는 것에 반해, 눈송이는 파편적이고, 형체를 잡기 어려운 성분이자 물질, 나아가 직관적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객체의 요소로 은유 된다.

때문에 누구든지 알아보는 눈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 있는 ‘눈송이’라는 결정적 물질이 어디에서 기인했고,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지 그 맥락에 따라 참여 작가들을 살펴보길 권한다.

특히 개별적인 작가들이 다루는 재료와 주제의 작업적인 면모는 이를 뒷받침하는 각기 다른 작가의 고유한 근거와 치밀하게 집중하여 실증성과 증거를 강조하는 문맥을 통해 신진 작가를 조명하고자 하는 이번 그룹전의 목적을 뒷받침한다. 각자의 방법론을 구성하기 위한 작가들의 방편은 보다 경험적이고 실증적으로, 《A Snowflake》전은 네 명의 작가가 제시하는 수수께끼가 작업의 리얼리티를 획득하는 방식과 어떠한 파편이 최종 결과물에 이르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시청각(Audio Visual Pavilion)은 종로구 자하문로에 위치한 독립전시공간이다. 안인용 에디터와 현시원 큐레이터는 2006년 창간된 독립 잡지 『워킹 매거진 (Walking Magazine)』의 멤버로 출발하여 2013년부터 한옥 공간을 전시장으로 개조한 시청각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개관전 《NO MOUNTAIN HIGH ENOUGH》(2013)부터 《MOVE & SCALE》(2015) 등 오늘날 예술제도 안에서 작가와 기획자의 자발적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시각 문화의 한 형태를 만들고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현시원은 전시공간 시청각의 큐레이터이자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문학과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다. 2006년에는 안인용, 황사라와 함께 독립 잡지 『워킹 매거진 (Walking Magazine)』을 창간해 7호까지 발간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뮤지엄 루트》(2016), 일민미술관 《다음 문장을 읽으시오》(공동기획, 2014), 《천수마트 2층》(2011) 등의 전시를 기획했다. 현대 미술과 이미지, 큐레이팅에 대해 꾸준히 글을 써왔으며 저서로 『디자인 극과 극』(2010), 『사물유람-큐레이터를 자극한 사물들』(2014),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고 말하기』(2017) 등이 있다.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당이미지는 홍보목적으로만 전시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 웹하드를 통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 ID: kukjegallery | PW: kukje

ZOE CHUN | COMMUNICATIONS DIRECTOR
T +82 2 3210 9885 | M +82 10 3570 8449 | zoe@kukjegallery.com

SABINNE CHEON | COMMUNICATIONS ASSISTANT DIRECTOR
T +82 2 3210 9821 | sabinne@kukjegallery.com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03053 KOREA
T + 82 2 735 8449 | F + 82 2 733 4879 | WWW.KUKJEGALLERY.COM

국제갤러리 그룹전 《A Snowflake》



김익현, <휴거>, 2016, 디지털 잉크젯 프린트, 사운드, 40 x 50 cm (8 pieces)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김익현(1985-)은 사진을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리서치 및 아카이브의 방식을 탐구하는 작업을 한다. 빛의 물질성이 화면 안에 남는 구조들에 대하여 작가는 실증적 아카이브를 겸하는 사진을 촬영해왔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한국의 현실을 나타내는 사고체계를 실증적으로 탐구하여 결국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보이는가 혹은 보이지 않는가?' 라는 근본에 이른다.

김익현은 이번 전시 참여 작품으로 <휴거>(2016) 연작과 함께 신작을 선보인다. <휴거> 연작은 1990년대 한국사회에 등장한 한 종교의 비가시적 믿음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장면들로 구성한 작업이다.

이는 1990년대 한국사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련의 돌발적 상황들에 잠재되어있던 '소실점', 즉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했던가 하는 심리의 문제들을 탐구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김익현은 구체적 실증의 사례들이 세상의 무엇을 가시화하는지, 역으로 기저에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 살피며 <LINK PATH LAYER> 연작의 새로운 출력 방식을 제시한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말까지 한국 사회에는 종교적 종말론에 기인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1992년 다미선교회 휴거 사건이 있다. 휴거를 기다린 사람들은 현실과는 다른 시공간을 설정하고, 믿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미래는 실현되지 않았다. "휴거 사건 이후 세상은 전날과 다름없이 계속되었지만 많은 일이 일어났다".

1993년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목포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추락, 서해 훼리호 침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1995년 대구 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1999년 인천 호프집 화재, 씨랜드 수련원 화재...

1992년 다미선교회의 휴거 사태는 미혹된 사람들이 일으킨 물의로만 볼 수 있을까? 절대적 믿음이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사회나 세속화된 대형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새로운 소실점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설정한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 <휴거> 김익현 작가노트 발췌



최윤, <액정 기포 미래 진열>(상세컷), 2017, 렌티큘러, 알루미늄, 에나멜 페인트, PET 필름, 122 x 244 cm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최윤(1989-)은 2010년대 대한민국의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끝없이 채집하게 되는 이미지들과 온/오프라인 세계의 부속물들을 재료로 영상과 퍼포먼스, 설치, 조각 등을 다룬다. 특유의 속도감과 청량함을 통해 자신만의 시공간을 설계해 나가는 그는 이번 전시에서 '과거'와 '온라인'이 만나는 한 지점을 송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렌티큘러(입체그림) 이미지를 기반으로 작업한 조각모음의 평면작품을 제작했다. 평면이미지가 3D 이미지가 되는 순간을 렌티큘러 기술로 읽어내어, 자연, 동물, 인공물(자동차 배) 등 스테레오타입으로 전환된 이미지가 짝을 이루어 변화하는 양태를 작업한다.

"여러 이미지를 이어 붙여 움직임이 반복되는 컴퓨터상의 이미지나 렌티큘러는 최소단위의 애니메이션(animation) 클립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아주 짧은 시간이 끝없이 반복되는 폐쇄회로 상태, 뒷에 걸린 상태, 쳇바퀴의 상태, 제자리걸음의 상태, 영혼은 없으나 죽지 않는 상태, 혹은 박제의 상태, 렉 걸린 상태다. 그런데도 이 반복적인 A-B 움직임에 사람들은 매료된다.

둘의 다른 점이라면, 렌티큘러는 관객의 시선을 움직이게 한다. 대상은 부동의 상태인데 시선의 이동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살아난다. 멈춰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순간은 착각인가, 속임수인가? 빛과 같은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혹은 보는 각도에 의해서 한 대상은 무한히 다르게 보이는데 인간의 놀라운 시각과 지각능력이 이것이 같은 대상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해준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인간의 시각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야속하다. '사실은 네가 본 그제, 그제 아니지롱~' 이라고 하는 렌티큘러의 얇은 배신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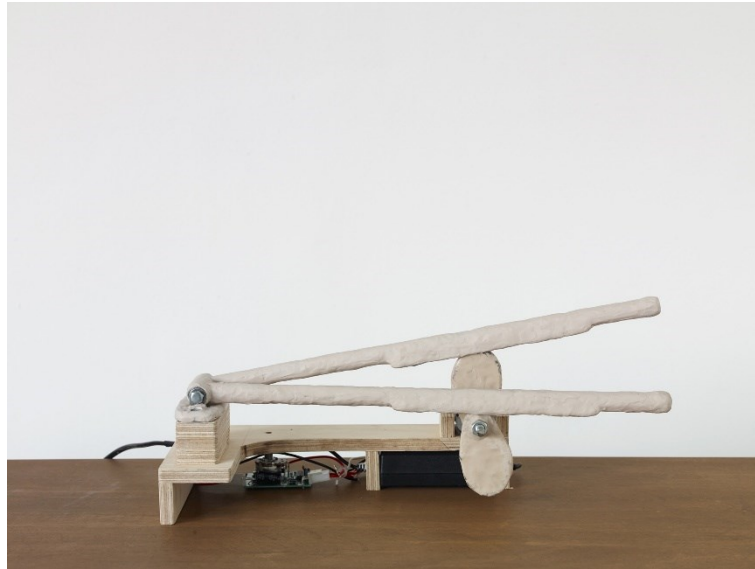
- 최윤 작가노트 발췌



박정혜, <No desert & no cry (#2)>, 2017, 린넨에 아크릴, 162.2 x 130 cm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박정혜(1989-)는 ‘인공의 세계에서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캔버스 내 불가능한 이야기들의 구성을 점쳐보는 점/선/면의 위치를 시작으로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직선, 곡선, 프레임들에는 입체감이 배제되어 있는데, 이는 ‘박정혜가 보고픈 세계’를 만들어가는 “느리면서 디테일한” 운동들을 그리기라는 행위로 치환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일련의 화면은 마치 끊겨진 필름과 같은 내러티브들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내러티브가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신작 <Kommt!+>는 관객이 그림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마치 관객을 향해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외 회화 작품 <Friends>는 작가의 친구들이 화면 중심에 위치한 나무를 보며 길을 건다가 마주치게 될 파편적 정보들을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이 표현했다. 화면에 등장하는 물방울과 눈물은 현실을 사막화하는 온라인의 수많은 정보들을 과연 인간의 눈이 어떻게 생동감있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질문하는, 인공의 세계에서 육육적인 물리적인 메타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미래, <빠가 있는 것의 운동>, 2016, 발견된 오브제에 유토, 모터 장치 및 혼합매체, 15×7×38 cm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이미래(1988-)는 조각의 물성과 재료, 키네틱(움직이는 방식)의 동기를 탐구하고 디스플레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다. 입체작업이 지니는 박력과 에너지, 귀여움과 감성, 휘발성을 탐구해 온 이미래는 조각을 통해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안한다. 이번 전시에서 그녀의 대표작 <빠가 있는 것의 운동>과 신작 <히스테리, 엘레강스, 카타르시스: 섬들>, <나의 개>등을 선보이며, 이는 '나'와 외부의 것들이 이루는 에너지가 충돌하는 심상을 묘사한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신작 <히스테리, 엘레강스, 카타르시스: 섬들>은 각각의 조각들이 특정 개념과 정서를 어떻게 발현해내는가를 실험하는 '조각/만들기'의 도전을 담고 있다. 전시장에는 제목에 명시된 세 개의 감정 구조, 히스테리, 엘레강스, 카타르시스를 드러내는 조각들이 작은 섬처럼 파편적으로 배치된다. 구부러진 선의 형태로 표현된 '엘레강스', 날렵한 철허로 구성된 '히스테리', 일본 성인 만화의 페이지에서 추출된 기호들로 인물의 감각과 동선 변화를 드러내는 '카타르시스'. 이 세 가지 개념들을 다양한 사이즈의 조각 형태로 만들어낸 작가는 '에너지'가 가리키는 방향과 그 방향이 왜곡되는 순간의 조각적 제스처를 탐구하고자 한다.